

## 창조의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세상의 모든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날을 깨달으면 모든 의미를 알 수 있고 마지막날도 알 수 있게된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땅 이 안에 모든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날이라」(창세기 1 장 3 절~5 절)

성경에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죽음이 있기때문에 생명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주는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며, 인생관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밝은희망으로 가득찬미래를 꿈 꿀 수 있습니다.

1.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창조첫날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좋아하셨다.

우리들은 이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하나님이라는것을 믿어야한다.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것을 주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7)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셨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밤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것은 창조의 신비이며 신앙생활입니다

모든것은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둠의 처지에 있더라도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멋진아침을 준비하고계십니다.

2.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전에 질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날 빛을 만들고나서 하늘, 바다와땅, 그리고 풀과나무, 날, 새와물고기, 여섯째날은 이세상의 모든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것을 단계적으로 만드셨다.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만들어진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꾀야된다. 그리고 이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하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한다. 십자가를 통과한 꿈이야말로 진실한 꿈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3.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2)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동할때 우리와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서 창세기 1 장 1~5 절